

3. 지역개관과 엘리뜨 구조 : 강원지역

林 星 漢

(강원대 법대 교수)

<차례>

- | | |
|-------------------|-------------------|
| 가. 春川市 | 1. 寧越郡의 概觀 |
| 1. 春川市 概觀 | 2. 엘리뜨研究를 위한 기초작업 |
| 2. 엘리뜨研究를 위한 기초작업 | 3. 寧越郡 엘리뜨構造의 特성 |
| 3. 春川市 엘리뜨構造의 特性 | 다. 要約 및 結論 |
| 나. 寧越郡 | |

가. 春川市

1. 春川市 概觀

(1) 春川市 略史

춘천시는 옛날 맥국(貊國)의 古都로 637년(신라 선덕여왕 6년)에 軍主를 두어 통치하였고 이름은 牛首州라고 하였다.

673년(신라 문무왕 13년)에는 우수주를 首若州, 조근급(鳥斤及) 또는 수차약(首次若)으로 바꾸었고, 경덕왕 때는 다시 삭주(朔州)로 개칭하였다. 994년(고려 성종 14년)에는 단련사(團練使)를 두어 안변부에 속하게 하였으나 安邊과의 교통이 극히 불편하므로 1202년(고려 선종 6년) 崔忠獻의 헌책(獻策)으로 안양도호부를 두어 안변과의 관계를 끊었다.

1412년(조선 태조 3년)에 와서는 현재의 이름인 춘천군(春川郡)으로 이름을 바꾸고 역시 도호부를 두었다.

1627년(조선 인조 5년)에 도호부를 없애고 방어사(防禦使) 또는 포토사(捕討使)를 두었다가 1746년(조선 영조 23년)에 방어사가 鐵原으로 옮겨짐에 따라 府使 겸 좌영을 두었다.

1887년(조선 고종 25년)에는 춘천留守 閔斗鎬로 하여금 王命에 의하여 현江原道廳 자리에 이궁(離宮)을 건축케 하여 조정이 위급할 때 피난처로 정하였다. 1894년(조선 고종 32년)에 원주 감영을 없앰과 동시에 도부사(都府

使)를 춘천으로 옮겼다가 나중에 관찰부로 이름을 바꾸었다.

1910년(조선 응희 4년) 한일합방후 관찰부를 도청으로 개칭함으로서 춘천은 江原道廳의 소재지가 되었다.

1917년이래 부내면(府內面)을 春川面으로 개칭하고 수원, 송도 등 24개 指定面의 하나가 되었으며 1931년 조선 地方制度 개혁에 의해 政府 指定面에서 邑으로 승격하여 邑제도를 실시함에 따라 현대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1927년에 준공된 상수도시설과 1937년에 개통된 京春철도는 한층 더 도시 발전에 박차를 가하였다.

1938년 당시 邑 전역과 新南面 칠전리(漆田里)의 일부를 포함한 시가지 계획을 실시하였고 1939년 10월 1일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석사, 후평, 우두, 사동, 온의, 퇴계의 6개 지역이 편입되어 구역을 확장하였다.

1946년 6월 軍政법령 제84호로 春川郡 春川邑이 府로 승격하고 1949년 8월 법률 제32호에 의거 地方自治制의 시행에 따라 府가 市로 개칭되면서 각 광을 받아 春川市는 강원도 도청소재지로 약진을 거듭하였다. 그러나 불행히도 1950년 6·25때는 시가지가 옛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되었다.

그러나 1951년 6월 수복한이래 戰禍로 재만 남은 향토재건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의 보람으로 春川은 오늘과 같은 짜임새있는 도시가 되었다. 1965년에 준공된 춘천댐과 1967년에 준공된 우리나라 最大的 昭陽江다목적댐으로 춘천시는 아름다운 인공호수로 둘러싸여졌으며 그리하여 전국 유일의 호반 관광도시로 발전하였다.

1973년 대통령령 제6542호로 행정구역이 개편됨에 따라 춘성군 신동면의 三川里, 松岩里, 漆田里와 新洞里 및 서면의 中島가 春川市로 편입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¹⁾

(2) 自然環境

面積 53.28km²의 春川市는 하나의 盆地 위에 자리잡고 있다. 韓半島 중심부에 위치한 春川盆地는 中部地方에 흐르는 大河인 漢江의 大支流인 北漢江中流에 자리잡고 있다.

이 盆地는 金剛山에서 發源하여 내려오는 北漢江 本流와 雪獄山에서부터

(1) 『춘천통계연보 1983』(제23회, 1983, 춘천시) 및 『昭陽의 脈』(1982, 春川市 발행) 참조.

내려오는 昭陽江이 합류하는 地點으로서 合流點 부근에 春川盆地의 鎮山이 며 화강암 残丘인 凤儀山(301.5m)이 솟아 있어 이 분지의 求心點이 되고 있다. 이 분지는 봉의 산을 중심으로 직경 약 20km내외까지 심히 開折된 残丘들이 펼쳐져 있고 그 밖으로 片麻岩帶 山地들이 이 분지를 둘러싸고 圓型을 그리면서 솟아 있다.

이러한 춘천분지의 모양은 凤儀山을 중심으로 둘레의 산들이 강강수월례를 돌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매우 큰 蓮꽃처럼 보이기도 한다. 봉의 산은 이 연꽃의 꽃술에 해당하고 동쪽에 大龍山, 加里山, 북쪽의 五峰山(=清平山), 芙蓉山, 서쪽의 三岳山, 北培山, 남쪽의 劍峯, 守理峯 등 標高 700~800m가 넘는 수없는 봉우리들이 둘러서서 연꽃의 꽃잎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기후는 전형적인 內陸性기후로서 寒暑의 差가 심하여 年平均 기온은 10°C이나 겨울은 영하 20°C이하의 酷寒을 기록할 때가 자주 있고 그때마다 인근 서울地方이나 原州地方보다 2°~3°C내지 4°~5°C이상 水銀柱가 하강하는 것이 보통이고 한여름에는 오히려 이를 다른 지방보다 2°~3°C이상 더 올라가는 酷暑를 보이는 때가 많다. 평균 降雨量은 약 1,250mm로서 道內 다른 지방보다 많은 편이고 여름철에 집중되어 있다.⁽³⁾

春川의 自然環境的인 가장 큰 특색은 湖畔都市라는 점이다. 衣岩댐, 春川댐, 昭陽댐으로 조성된 人工湖水는 이 지역 자연환경의 일대 변화이고 北漢江流域의 自然改造라고도 볼 수 있다. 發電으로 얻어지는 동력은 국가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여 그 意義가 크다. 이렇게 조성 창출된 環境 與件에서 새로이 立地가 성립되어 가는 산업으로서 內水產業, 觀光產業은 새로운 밝은 展望을 보여주며 지역사회의 경제적 意義가 대단히 크다.

三岳山, 五峰山, 龍華山 그리고 수려한 여러 계곡에 새롭게 펼쳐진 三大人工湖는 內陸 景觀에 일대 변화를 가져 왔으며 다른 곳에서 찾아볼 수 없는 특이한 경승지를 이룩했다. 이 湖水들의 특색으로 山湖性 觀光美를 짚게 하는 單一湖가 아니고, 三個湖水로 연결되어 변화를 풍부하게 하는 連湖性을 지닌 점은 매우 특이하다 하겠다.⁽³⁾

(3) 人口·產業經濟

(2) 『春州誌』, (1984, 春川市·春城郡發行), p. 193.

(3) 同誌, p. 194.

인구는 1982년 3월 1일 현재 159,520명인데 그중 남자는 79,651명이고 여자는 79,869명이다. 그리고 가구수는 33,807호이다.⁽⁴⁾

産業構造를 보면, 81년 말 현재 경제활동 인구는 48,653명인데 그중 63%나 되는 30,647명이 사회간접자본 및 서비스업인 3次産業에 종사하고 있어, 이 분야의 비중이 가장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次산업인 農林業에 종사하는 經濟活動人口는 10,006명으로 21%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제 2차산업인 광공업에는 16%인 8,000명만이 종사하고 있을 뿐이다.⁽⁵⁾

國民所得의 경우를 보면 우리나라 1人當 國民소득은 1960년까지만 해도 87弗에 불과했으나 1972년에는 253弗로서 후진국의 수준을 벗어나 1981년에는 1,636弗을 기록하고 있는데 반해 江原道는 1971년에 175弗, 1981년에는 1,396Fr로서 全國수준에 못 미치는 저조함을 나타내고 있다. 1980년도의 市道別 住民總生產과 1人當 所得을 비교해 보면 강원도는 우리나라 全市道 生產의 4.1%를 점유해 5위에 머물고 있으며 1人當 生產所得은 1,282Fr로 7位를 차지하고 있다.⁽⁶⁾

한편 道內 住民總生產 및 1人當生產所得을 市郡별로 비교해 보면, 春川은 住民總生產의 경우는 154,166百萬원으로 11.0%를 占有해 2位를 차지하고 있고, 1人當 生產所得의 경우도 1,633Fr로 2位를 차지하고 있다.

財政의 경우를 보면, 먼저 江原道의 財政構造는 그 自立性이 매우 낫다. 1982년도 歲入의 경우 총예산의 37.6%인 79,723百萬원이 地方交付稅 收入에 의존하고 있으며 地方稅는 23,178百萬원으로는 겨우 10.9%에 해당하고 있다. 특히 補助金이 57,605百萬원으로 총예산의 27.2%를 차지해 地方交付稅 다음으로 높은 歲入源임을 나타내고 있다. 더우기 道의 경우는 34.9%가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自主財源인 地方稅와 稅外收入이 총세입예산의 35.2%, 依存財源인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이 64.8%를 각각 차지하고 있어 비교적 國庫依存度가 높은 것이 강원도 財政構造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다.⁽⁷⁾

이러한 財政的인 성격은 春川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1982년도 춘천시의 세입을 보면 지방교부세가 2,651百萬원으로 예산의 25%를 차지하고 있고,

(4) 『江原年鑑 1983』(1982, 江原日報社發行), p. 209.

(5) 同年鑑, p. 209.

(6) 『春州誌』, 前揭書, p. 700.

(7) 同誌, p. 710.

보조금이 1,388百萬원으로 13.1%, 교부금이 604百萬원으로 5.7%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國庫依存度는 43.8%이다. 물론 이 숫자는 江原道 全體로서의 숫자보다는 훨씬 下廻하지만 그래도 심각한 狀況을 말해주는 숫자가 아닐 수 없다. 앞으로 실시될 地方自治를 위해서도 產業發展 등 다각도로 稅源 확보를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다. ⁽⁸⁾

(4) 教育·文化

춘천시 教育廳 管內에는 82년 4월 1일 현재 国民학교는 公立 13個校, 私立 1個校, 國立 1個校, 特殊學校 2個校로 모두 17個校에 20,723명이 在學하고 있으며 10個의 公·私立中學校(公立 6개교, 私立 4개교)에 12,907명의 학생이 在學하고 있다. 国民학교와 中學校의 教員 現況을 보면 初等教員이 447명이고 中學校教員은 273명에 달하고 있다.

高等學校의 경우 같은 82년 4월 1일 현재 춘천시에는 公立 4개교, 私立 4개교, 國립(江原大師大附高) 1개교 도합 9개교가 설립되어 있다. 이들 학교의 학생수는 13,484명이고 교원수는 422명이다.

春川地方에 있어서 大學教育의 面을 살펴보면, 8·15光復前에는 高等教育機關이 하나도 없었다. 이곳에 처음으로 설립된 大學은 현 江原大學校의 前身인 江原道立春川農業大學이었다. 이 학교는 1947년에 설립인가를 받고同年 7月 30일에 初代學長署理로 李在鶴氏가 발령되었고 農學科 新入生이 모집되었으며 春川 農業高等學校 校舍에서 수업을 시작했다.

다음은 1960년에 설립된 春川大學(현재는 江原大學校에 統合폐교됨)과 1962년에 설립된 春川教育大學을 들 수 있다. 그 다음이 1963년에 私立으로 설립된 春川聖心女子大學(경기도로 이전하였음)과 1973년에 看護高等學校에서 승격된 春川看護專門學校(春川看護專門大學으로 승격하였다가 翰林大學에 부속됨) 그리고 1982년에 설립 인가된 翰林大學 등이다.

江原大學校의 教職員 및 學生現況을 보면 82년 8월 말 현재 大學校에 교수 458명 定員에 336명의 교수가, 부속고등학교엔 56명의 教師가 있으며, 일반직에 355명이 근무하고 있다. 한편 82년 7월 1일 현재 8個單科大學의 재학생 수는 11,639명이며 大學院生중 碩士課程이 287명, 博士課程이 22명으로 江原大學校의 총 재학생수는 11,948명에 달하고 있으며, 1981학년도까지 大學 5,941명과 大學院 147명 등 모두 6,088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시설 현황

(8) 『춘천통계연보 1983』(제23회, 1983, 춘천시), p.128.

에 있어서는 校地 175,745평에 體育場이 11,000평, 부속農場 87,565평, 부속연습림 9,249,993평 등이 있다. 校舍 건축면적은 32,879m²이고 延建築面積은 88,776m²에 달하고 있다. 이 강원대학교는 綜合大學으로서의 年輪은 비록 짧다 하더라도 30여년간의 成長過程을 통해 이룩한 歷史와 傳統, 그리고 업적을 토대로 하여 앞으로 명실공히 江原道 高等教育의 中樞를 이루어 나가리라고 믿어진다.

春川教育大學의 教授現況을 보면 學長 1명 등 定員 41명에 現員 38명이 있으며, 일반직은 事務職 20명, 고용원 및 임시직 14명으로 되어 있다. 施設으로는 大學敷地 59,790평, 부속학교 4,953평 등 64,743평과 林野 22,200평이 있으며, 건물은 대학이 延建坪 4,321평에 부속학교 671평 등 4,992평에 달하고 있다. 學生現況을 보면 남학생 104명, 여학생 707명 도합 811명이 在學하고 있으며, 1~19회에 걸쳐 4,564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在學하고 있으며, 1982년에 설립된 翰林大學의 시설현황을 보면 校地 35,600평에 체육장이 11명에 一般職 60명이 있으며 在學生은 82학년도 入學定員 260명에 224명이 在學하고 있다.

文化面을 보면, 1982년 현재 지정文化財가 보물이 2개이고, 지방문화재로는 유형문화재 2, 기념물 3, 도합 5개이다. 극장은 3개가 있고 수용인원은 각각 844명, 544명, 545명이다. T.V 및 신문보급현황을 보면 역시 82년 현재 칼리가 9,179대, 흑백이 21,645대, 도합 30,824대이고, 신문은 중앙지가 11,996부, 지방지가 3,477부, 도합 15,473부이다. 종교단체의 현황을 보면 기독교가 교당 60개에 교직자 138명, 천주교가 교당 5개에 교직자 21명, 불교가 교당 21개에 교직자 35명, 유교가 교당 1개에 교직자 22명, 천도교 교당 1개에 교직자 1명, 원불교 교당 2개에 교직자 2명이다.⁽⁹⁾

(5) 民俗 및 特產物

春川地方은 韓半島의 중앙부에 자리잡고 있어 民俗의 일반적인 경향은 우리나라 中部的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같은 江原道이고 위도상으로 같은 中部에 위치한 嶺東지방과 嶺西의 太白山脈 깊숙히 들어 있는 지역, 이를테면 平昌, 旌善, 寧越과는 歲時風俗에서부터 通過儀禮, 衣食住생활에 이르기까지 다소의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9) 同연보, p. 123-124.

이는 물론 嶺東지방이 이 지역과는 달리 海岸을 끼고 있어 생활환경이 다른데서 오는 차이 때문이기도 하겠으나 太白山脈이 嶺의 東西를 가로막고 있었는데도 그 원인이 있었던 것 같다. 이 지방의 民俗은 道內에서는 嶺西 山間地方인 麟蹄, 楊口, 華川, 洪川, 橫城, 原州, 原城과 脈絡을 같이하고 있다.

이들 지역처럼 山間農耕地帶圈인 춘천지방은 이들 다른 지역에 비하여 都市 형성이 가장 빨리 되었으며 都市圈이 가장 크다는 여건 때문에 전래의 민속의 殘影이 가장 흐려진 지역으로 지적된다. 이에 따라 衣食住는 이미 현대화되어 지역적인 특수성은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¹⁰⁾

다음으로 이 춘천지방에서 즐겨먹고 또 이 지방에서 출발한 별미 음식을 몇 가지 들면 춘천막국수와 춘천닭갈비, 쏘가리매운탕 등일 것이다.

춘천막국수는 메밀국수로 노인들의 말로는 추운 북쪽(평안도) 지방에서부터 농촌음식으로만 전해져 오고 있으나, 오늘에 있어서는 춘천에서 시작된 것처럼 한입 두입을 전너 전국에 「춘천막국수」라는 별미로 퍼져있다. ⁽¹¹⁾

춘천닭갈비는 맥국으로 거슬러 올라가 서기 637년(신라 선덕왕 6년)에 지금의 춘천이 牛首州였을 때부터 닭을 잡아서 내장을 빼고 양념을 넣어 닭적을 만들어 제사상에 올린 것이 그 원조라는 말이 있으나 확실한 문헌이나 근거는 없다. ⁽¹²⁾

그리고 쏘가리매운탕은 春川湖, 衣岩湖, 昭陽湖 등 호반에 널리 서식하고 있는 쏘가리를 주로 하여 잉어, 붕어, 매자 등의 고기를 곁들여 넣고 끓인 매운탕이다.

(6) 名勝・文化財・천연기념물・觀光

춘천의 名勝으로 凤儀山, 昭陽江, 牛頭山, 孔之川 등이 꼽힌다. 봉의산은 춘천의 鎮山으로 춘천분지 중심부에 우뚝 솟아 있다. 이 산은 산과 산이 맥으로 이어진 산이 아니고 홀로 우뚝 솟아 있으며 이 산을 남쪽 멀리서 바라보면 상서스러운 상징의 새(鳳)가 나래를 펴고 威儀를 갖추고자 하는 모습이 완연하여 봉의란 이름이 붙여진 듯하다.

昭陽江은 화천, 양구, 인제 세 郡의 계곡사이를 통과하는 동안 여러 支流와 합하면서 한강으로 들어가기 전 춘천을 지나가는 크지도 작지도 않은 긴

(10) 『春州誌』, 前揭書, p. 451.

(11) 『昭陽의 脈』(1982, 春川市발행), p. 141.

(12) 同書, p. 142.

강이다. 牛頭山은 봉의 산 북쪽, 소양강 서편에 자리잡고 있는 野山으로 신라시대 長久한 기간 이 고을 이름과 관계가 깊은 오랜 由緒를 가진 산이다.

孔之川은 의암댐을 지나 춘천으로 들어오자면 그 어귀에 있는 의암호로 들어가는 내천이다. 이 공지천에서는 겨울이 되면 특설 링이 개설되어 우리나라 동계체전이 열린다.⁽¹³⁾

文化財로서 춘천의 先史遺蹟으로 内坪里先史유적, 校洞穴居遺趾, 中島先史遺蹟 등등이 있고 有形文化財로는 春川七層石塔, 檀花洞幢寺支柱, 新梅里三層石塔, 清平寺址遺物, 清平寺回轉門, 威鳳門, 朝陽樓, 昭陽亭 등등이 있다. 紀念物로는 凤儀山城, 三岳山城, 壯節公申崇謙墓, 毅庵柳麟錫墓, 池繼泗護聖碑, 昭陽路善政碑, 春川妓桂心殉節碑 등등이 있다.

天然紀念物로는 漢江의 황쏘가리, 장수하늘소 發生地, 漢江어름치, 萬泉里 白鷺 왜가리繁息地 등이 있다.⁽¹⁴⁾

끝으로 觀光面을 보면, 北漢江 上流를 막아 생긴 衣岩湖, 春川湖, 昭陽湖 등 人工湖水가 겨울처럼 반짝이고 있고 그 둘레에는 三岳山, 北培山, 華岳山, 五峰山, 加里山, 大龍山 등의 큰 山들이 멀리서 병풍처럼 이 春山盆地와 湖水를 감싸고 있는 것이 춘천이다.

호수가 널리고 산이 우람하게 둘러친 이 고장을 공개하여 觀光客을 불러들이기 위해서 각종 慰樂施設을 계획하고 있고 南怡섬, 蝦島 등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갖추고 있다 하겠다. 앞으로 이 지역의 관광개발이 더욱 더 이루어지고 京春間道路 4次線工事が 끝나면 이 지역의 관광은 더 한층 각광을 받게 될 것이 틀림없다.

2. 엘리뜨研究를 위한 기초작업

먼저 地方엘리뜨의 정의는 다음과 같이 내렸다. 즉 공식 또는 비공식적으로 地域社會와 관련된 문제 제기와 그 해결, 공공결정 및 자원배분활동에 많은 권한과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 또는 조직의 실력자가 엘리뜨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엘리뜨를 세 가지 部類로 분류하였다. 제도적 엘리뜨, 사회적 엘리뜨, 경제적 엘리뜨가 그것이다. 먼저 제도적 엘리뜨는 각종의 政治·行

(13) 同書, p.145-148 참조.

『春州誌』, 前揭書, pp. 1264-1304 참조.

政單位, 정당, 군대 및 官僚職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지칭했고, 사회적 엘리뜨는 言論, 社會, 文化, 教育, 사회복지, 의사, 변호사 등 각종 사회분야의 지도인사 및 자발적조직의 지도자, 여론지도자, 유지 등을 지칭했으며, 경제적 엘리뜨는 商·工·農·금융 등 經濟·產業活動의 지도급인사 또는 유지 등을 지칭했다.

엘리뜨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는 세 가지 기준 혹은 방법, 즉 지위분석법, 평판분석법, 정책결정분석법을 혼용하는 방법을 썼다. 지위분석법은 공공조직과 기구의 高位職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곧 엘리뜨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고 권력은 꼭 개인이 차지하고 있는 제도상의 位置와 機能에서 파생한다는 이론에 입각하여 엘리뜨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평판분석법은 조직상의 지위나 기능에 국한하지 않고 실제로 누가 얼마만큼 권력과 영향력을 가졌는가에 대한 전문가들의 판단에 근거하여 엘리뜨를 확인해내는 방법이다. 정책결정분석법은 權力은 政策決定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에 의해 좌우되므로 엘리뜨는 주요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연구해야 한다는 방법이다. 이상 세 가지 方法은 각기 장단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 세 가지를 보완하여 보다 정확히 엘리뜨를 확인하기 위해 이들 세 가지 방법을 혼용했다. 혼용하되 지위분석법과 평판분석법을 혼용한 모델을 주로 사용하고 정책결정분석법은 필요에 따라 부수적으로 활용했다.

이리하여 엘리뜨를 선정했는데 엘리뜨 선정방법과 절차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참고자료의 수집을 먼저 행했다. 수집된 참고자료는 대체로 다음과 같았다.

- ① 강원연감(1984)
- ② 신년인사회 명부(춘천상공회의소 작성)
- ③ 도정자문위원 명단
- ④ 백양회 명단(퇴직공무원단체)
- ⑤ 춘천시 수요회 명단(기관장모임)
- ⑥ 춘천번영회 명단
- ⑦ 도지방문화재위원회 명단
- ⑧ 강원도 기구표 및 춘천시 기구표
- ⑨ 평통정책자문위원 명단
- ⑩ 시정자문위원 명단

둘째, 위의 자료들을 利用해서 엘리트를 뽑아냈다. 제도적 엘리트, 사회적 엘리트, 경제적 엘리트의 各分野에 조사대상 엘리트는 각각 20명씩 총 60명이었다. 그러나 엘리트 최종선발과정까지의 변경을 고려하여 충분한 인원을 뽑아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각분야 35명씩 도합 105명을 1次로 선정했다.

세째, 평판분석법을 쓰기 위해서 각계에서 5명의 주요 人士들을 선정하였다. 그리하여 이들에게 각각 105명의 명단을 제시하고 여기서 첨가할 인사 빼낼 인사 등에 관하여 상의했고 또 3개 분야 엘리트 리스트에서의 서열도 문의했다.

네째, 이들 5명 人士들과 면담한 면담지 5장을 이용해서 우선 공통된 견해들이 많이 나온 人士들을 우선 각분야의 엘리트로 선정해 나갔다. 그리고 리스트에 있어서의 서열도 그들 5인간의 공통된 견해가 많은 것을 택하여 작성해 들어갔다.

다섯째, 그리하여 결국에 가서는 3개 분야에 각각 25명의 엘리트를 선정하여 분야별로 서열을 작성한 것이다. 조사 대상 人士는 각분야 20명씩 60명이지만 각분야에 5명씩을 더 추가하여 총 75명으로 한 것은 조사과정에서 不在증이거나 기타 이유로서 만날 수가 없을 때를 대비해서이다. 그러한 경우는 조사대상 인사가 21번째 22번째……25번째 순서로 내려오면서 代置되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최종적으로 선정된 엘리트들의 명단 제시는 생략하기로 한다.

3. 春川市 엘리트構造의 특성

우선 春川地方에 있어서 世居氏族의 내력을 살펴보면 이 지방의 最古의 定着 氏族이며 유일하게 이 고장을 貫鄉으로 삼고 있는 春川朴氏를 제외하면 麗朝부터 世居한 씨족은 거의 눈에 띄지 않으며 世居氏族들은 대개 朝鮮朝 초기부터 정착을 시작한다.

이들 落鄉 世居氏族은 여러 部類가 있겠지만 記錄이 뚜렷하고 이 지방에 代代先山이 있는 氏族을 살펴보면 모두 高麗때에 벼슬을 하던 家系의 후예들로서 朝鮮朝 開國의 참여도에 따라서 落鄉年代의 先後가 유래되고, 그 다음에는 각 土禍에서 벼슬을 버리든가, 그렇지 않으면 壬辰倭亂 또는 丙子胡亂에 피난차 왔다가 정착한 氏族도 있고, 많지는 않지만 이 고장에 벼슬살

이를 왔다가 놀러 살게된 氏族도 있다.

이들 氏族을 나열해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光山 金氏, 善山 金氏, 清風 金氏, 泗川 瞳氏, 靈岩 朴氏, 春川 朴氏, 亘濟 潘氏, 昌寧 成氏, 鎮川 宋氏, 平山 申氏, 青松 沈氏, 順興 安氏, 濟州 梁氏, 海州 吳氏, 高興 柳氏, 文化 柳氏, 江陵 劉氏, 坡平 尹氏, 慶州 李氏, 星州 李氏, 全州 李氏壽春君派, 韓山 李氏, 光州 鄭氏, 青山 鄭氏, 草溪 鄭氏, 豊壤 趙氏, 延安 車氏, 隨城 崔氏, 清州 韓氏, 南陽 洪氏, 平海 黃氏 등이 그것이다.⁽¹⁵⁾

그리고 春川이 낳은 人物로 朴恒, 具仁蘭, 李圭完, 車相瓊, 崔圭植 등을 들고 있는 것 같다. 朴恒은 고려때의 유능한 관리로, 원나라 세조가 日本을 정벌하려고 軍器, 軍糧, 軍備를 징발할 때 左丞相으로서 원나라 감독자들의 횡포를 경제했다. 그는 성품이 관대하고 문장에 뛰어났으며 매사에 공명 정대했었다.

아일랜드共和國에서 출생한 碧眠의 한국인인 具仁蘭은 1934년부터 1970년 까지 36년간 한국과 한민족을 위해 聖콜롬반선교회에서 모든 시간과 역량을 바쳐 일하다 숨진 사람이다.

이규완은 1908년에 강원도 관찰사, 1911년에 강원도장관을 역임하면서 많은 선정을 베푼 사람이다.

車相瓊은 1921년 제 4대 개벽사 주간으로 운영난에 쓰러져가는 同社를 17년 동안 지켰었다.

최규식은 軍중령출신 총경으로 1968년 1·21사태때 단신接敵 散華한 사람이다.⁽¹⁶⁾

그리고 위에서 본 世居氏族들 중 아직까지 상당히 인정되고 있는 氏族들은 다음과 같다 하겠다.

즉, 春城郡 新北面 泉田 4里를 中心으로 살고 있는 慶州 李씨,⁽¹⁷⁾ 春城郡 新北面 池內리를 中心으로 한 文化 柳씨,⁽¹⁸⁾ 春城郡 東면 甘井리를 中心으로 살고 있는 春川 朴氏,⁽¹⁹⁾ 春城西面 新梅里를 中心으로 한 光山 金씨,⁽²⁰⁾

(15) 同誌, p. 1405-1433 참조.

(16) 『昭陽의 脈』, 前揭書, p. 155-156.

(17) 『江原日報』, 1982. 9. 21字.

(18) 同紙, 1982. 2. 23字.

(19) 同紙, 1982. 2. 21字.

(20) 同紙, 1981. 1. 26字.

春城西面 新梅里를 中心으로 한 南陽 洪씨,⁽²¹⁾ 春城南面 柯亭里를 중심으로 한 高興 柳氏⁽²²⁾ 등이 그것이다.

이들 氏族들은 그 자손들이 상당히 번창했고各界各層에서 要職을 맡아 활약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 그러나 그들은 春川地域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春川을 떠나 他地域에 나가 있는 사람들도 많다. 따라서 그一部만 춘천에 남아서 활약하고 있다. 그리고 춘천지역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각기 스스로의 하는 일에 충실하고 있지, 특별히 엘리뜨團을 형성하고 있다든지 또 개인적으로도 權力を 행사한다든지, 아니면 權力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과 같은 현상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各界에서 몇 사람의 유력한 人士들을 골라 면담한 결과 나타난 것이다.

춘천지역 엘리뜨의 종류는 위에서 구분했듯이 제도적, 사회적, 경제적 엘리뜨로 大分할 수 있다. 이중 制度的 엘리뜨가 主役을 맡고 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政治 行政 經濟 등이 中央集中的인 우리 현실로 보아 中央과直結되어 있고 中央의 지시를 받는 制度的 엘리뜨들이 주동역할을 하고 있음을 오히려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다.

社會的, 經濟的 엘리뜨들은 이 제도적 엘리트들에 대하여 보조적 役割을 하고 있는 狀況이라고 볼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에게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位置에 놓여 있는 것이다.

그 영향력도 中央과 관련되어 있는部分에 가서는 미미하기 짜이 없고 다만 地方問題의 경우에 어느 정도 발휘되는 것 같다. 그리고 이 영향력의 행사는 個人的인 것도 있지만 조직적인 것도 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잘 조직되어 있다고는 볼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이 조직적인 영향력은 크지 못하다고 보아야 할 것 같다. 이러한 사실도 방금 위에서 말한各界에서 골라 면담한 유력 人士들의 견해가 뒷받침해 주고 있다.

물론 위에서 본 世居氏族들의 후손들도 이들 세 가지 엘리뜨類型에 섞여져 소속되어 있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21) 同紙, 1981. 11. 3字.

(22) 同紙, 1981. 10. 6字.

나. 寧 越 郡

1. 寧越郡 概觀

(1) 寧越郡의 略史

中部 内陸에 위치하고 있는 영월군은 그 옛날 부락국가 형태를 이루었던 것으로 믿어지는 바, 三韓시대에는 辰韓의 일부분이었고, 4세기 초부터 漢山城(廣州)을 중심으로 일어나 百濟의 세력이 커져서 漢江 하류지역 일대를 차지하여 이때부터 백제에 속하게 되었다. 그래서 당시 이 고장은 백제의 「百越」땅으로 호칭되었다. 가구수가 100이 넘는다는 뜻으로 지금의 영월읍 소재 마을을 「백월」땅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그러나 북쪽 高句麗의 세력이 樂浪郡을 정복하면서 남하하게 되고, 또한 半島의 동남부에서 일어난 新羅의 세력이 팽창하여 北上하게 되면서 漱江이 남의 중부지방은 백제 고구려 신라 등 三國 사이에 치열한 戰爭의 중심지가 되었다.

427년(長壽王때)에 고구려는 國都를 평양으로 옮기고 그 세력을 남으로 뻗쳐서 백제의 도읍지인 漱城을 함락시켰다. 그 후부터 한강 流域은 그 전부를 고구려가 점령하게 되어 百越(영월)은 고구려에 속하게 되고 또 이 때부터 奈生縣(내생현)이라 부르게 되었다. 그후 신라가 三國統一의 위업을 달성하고 국가의 통치제도를 정비할 때 내성현을 奈城郡으로 개칭하였다. 내성군은 신라의 九州五小京중 濟州에 속했었다. 신라 衰亡期에 들어서 새로 일어난 後百濟와의 대립은 대단히 치열하여 마치 삼국정립기를 재현케 하였는데, 이 때 신라가 尚州, 良州, 唐州를 차지하게 되고 후백제가 응주(熊州), 完州, 武州를 차지하게 되어 高麗는 漵州, 朔州, 濟州, 즉 고구려 남부를 차지하게 되자 영월지방은 고려에 영속하게 되고 말았다.

그후 顯宗朝(1010~1031년)에 酒泉縣을 폐합과 동시에 原州에 移屬시켰고 1167년 내성군을 폐하고 寧越郡으로 다시 개칭하였는데 995년(高麗成宗 14) 전국을 10道로 나눌 때 原州와 같이 중원도(忠清道)에 속하게 되었다. 1110년(고려 肩宗) 전국을 五道兩界로 나눌 때에는 楊廣道(충청경기의一部)에 편입되어 있다가, 1372년(고려 恭愍王 21년)에 영월출신 환자(宦者) 연달마 실리(延達麻實里)가 明나라에 있으면서 국가에 功이 있다고 하여 영월을 郡으로 승격시켰는데, 本朝에서는 이 때 충청도에서 분할하여 강원도로 귀속

하면서 知郡事が 다스렸다. 朝鮮王朝에서는 고려때 양광도에 속해 있던 이 군을 강원도에 귀속시켜서 郡을 두었는데 1698년(肅宗 24년) 도로 승격하였다가 1895년(고종 32년) 乙未改編시 전국의 도호부(都護部)를 없앨 때 郡으로 하였으며, 原州, 平昌, 旌善과 함께 忠州府에 편입하였다가 1896년 전국을 13道로 구획할 때 다시 강원도로 복귀시켰다.

그후 일부 행정구역의 변동이 있었는데, 1914년 原州에 속해 있던 水周面과 酒泉의 右邊面 및 左邊面이 이 군으로 귀속되었고, 1915년에는 정선군 新東面 石項里가, 1962년에는 慶北 奉化郡 春陽面 川坪里와 德邱里가 편입된 반면, 이 군의 水周面 강림리(講林里), 釜谷里, 月峴里가 橫城郡으로 移屬되었고, 1973년에는 정선군 신동면 千浦里 일부가 이 군으로 편입되었다.

끝으로 寧越이란 地名의 由來를 잠깐 살펴 보면 이 고장은 옛날부터 山과 江이 많아 교통이 불편하고 농토가 적고 토박하여 농작물이 잘 되지 않았다. 그러나 山水가 아름답고 地下資源이 풍부해 일화천금(一攫千金)의 꿈을 안고 이 지방을 찾아오는 사람이 많았다. 이러한 허황된 꿈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이 놀고 먹으며 酒色雜技로 세월을 보내다 결국 이 고장을 떠나가곤 했다. 이러한 사정을 잘 아는 어느 학식있는 鄉吏가 허황된 꿈에 사로잡힌 流浪民들을 정착시키기 위해 농업을 권장하는 계몽에 앞장섰다고 한다. 그 내용은 「편안히 놀지 말고 부지런히 일하자」는 것이었다. 그래서 「편안함을 초월해서 근실하자」는 뜻으로 安寧에서 「寧」자를 따고 超越에서 「越」자를 따서 「寧越」로 表記하였는데 이 「寧越」운동이 그후 이 지방의 地名으로 쓰이게 되었다고 전한다.⁽²³⁾

(2) 自然環境

영월군은 江原嶺의 남서부에 위치하여 東은 삼척, 정선, 面는 원성, 제천, 南은 단양, 봉화, 北은 평창, 횡성과 경계를 접하고 있으며 그 면적은 1,097 km²이다.

東西로 태백산맥 西南으로 소백산맥이 뻗어 있어 협준한 산악지대를 형성하여 이 지역에는 해발 1,000m 이상 되는 산이 많으며 경지면적도 총면적의 11%에 불과하며 하천은 이 산악을 관류하는 東江과 西江이 있어 남한강 상류가 되고 있다. 이들 하천은 水量도 풍부하고 산지와 협곡을 흘러 담수어의 서식이 많고 농업용수에의 이용 및 소계곡 수력발전 등 개발할 소지가

(23) 『寧越의 香氣』(1982, 영월군 발행), p. 4.

많다. ⁽²⁴⁾

기후는 평야 또는 해안지대에 비하여 고냉지에 속하며 대륙성기후의 특징이 현저하나 강원도 최남단에 있으므로 온난한 편이지만 한서의 차는 심하다. ⁽²⁵⁾

영월은 山과 江으로 이루어져 있고 옛날에는 교통이 불편하여 거의 고립되다시피 했기 때문에 단종의 유배지로 선택되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고장 영월은 江原道 서남단에 위치하고 충청북도 경상북도와 접경하였고 동해와 중부내륙을 잇는 중간에 있어 예전에는 전략적 요충이었고, 현재는 교통의 中心地이기도 하다. 그 예로는 삼국시대의 산성으로 가장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는 正陽山城(王儉城)과 대야리의 城山城, 泰華山城 그리고 莊澤山城 등의 古城이 南漢江을 중심으로 여러 곳에 배치되어 있음은 남한강 유역의 전략적 요충임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²⁶⁾

(3) 人口·產業經濟

인구는 81년 10월 1일 현재 94,692명인데 그중 남자는 48,935명이고 여자는 45,757명이다. 그리고 가구수는 19,504호이고 인구밀도는 86.6명이다. ⁽²⁷⁾

產業구조를 보면 82년 6월 말 현재 1次 產業 40%, 2次산업 22%, 3차산업 38%로 부문별로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농업인구는 전주민의 48%인 41,934명으로 경지면적은 畔 1,833.2ha, 田 7,710.3ha이다. 81년 鐵工業 생산목표와 실적을 보면 상동광업소가 4,300t목표에 5,400t, 쌍용양회가 206만t 계획에 183만t, 우동광업소 105,000t계획에 103,000t을 생산했으며, 기타 광업소에서 무연탄 504,000t, 석회석 194만t을 각각 생산했다. ⁽²⁸⁾ 이곳이 重石과 石灰石으로 유명한 곳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財政의 경우를 보면, 1982년도 영월군의 세입을 보면 지방교부세가 27억 4천만원으로 예산의 43.6%를 차지하고 있고 보조금이 19억 1천 7백만원으로 30.5%, 교부금이 3억 2천 1백만원으로 5.1%를 차지하고 있다. ⁽²⁹⁾ 따라서 國庫依存度는 79.2%이다. 이 숫자는 춘천시의 43.8%에 비하면 엄청난 숫자이며 강원도 전체의 數字인 64.8%보다도 훨씬 上廻하는 숫자이다. 반

(24) 『향토교본』(1972, 영월군 향토교본편찬위원회), p.15-16.

(25) 同書, p.21.

(26) 『영월을 찾아서』, 박영국 역음(1983, 경성문화사 발행), p.50-51.

(27) 『江原年鑑 1983』, 前揭書, p.232.

(28) 同書, 同面.

(29) 『통계연보』(제23회, 1983, 영월군), p.208.

면 郡의 自主財源인 地方稅는 7억 2천 3백만원으로 11.5%에 불과하다. 이렇게 볼 때 영월군의 財政自立度는 너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으로 地方自治制가 실시될 때를 대비하여 역시 產業發展 등 다각도의 稅源확보를 위한 노력이 적극적으로 전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4) 教育·文化

영월군에는 83년 4월 1일 현재 国民학교는 公立만 66개교로 14,193명이 在學하고 있으며, 中學校는 公立 10개교 私立 2개교 도합 12개교에 7,141 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다. 그리고 高等學校의 경우, 公立 4개교 사립 2개교 도합 6개교에 5,035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다.

敎員 現況을 살펴보면, 国民학교에는 504명이, 中學校에는 208명이 그리고 고등학교에는 173명이 奉職하고 있다.⁽³⁰⁾ 영월군에는 유치원도 없고 또 大學도 없다.

文化面을 보면, 1982년 현재 지정文化財가 보물 1개, 사적 1개, 천연기념물 2개, 도합 4개이고, 지방文化財로는 유형문화재가 6개, 기념물 5개, 도합 11개이다. 극장은 2개이고 수용인원은 각각 445명, 392명이다. T.V 및 신문보급현황을 보면 역시 82년 현재 칼라 2,091대, 흑백 13,262대 도합 15,353대이고, 신문은 중앙지가 6,450부, 지방지가 987부, 도합 7,437부이다. 종교 단체의 현황을 보면, 기독교가 교당 75개, 천주교가 교당 5개, 불교가 교당 16개이다. 교직자수는 통계자료의 미비로 정확히 밝혀지고 있지 못한 것 같다.⁽³¹⁾

(5) 民俗 및 特產物

춘천지방을 다를 때 이미 언급했듯이 춘천은 嶺西 山間地方인 인제, 양구, 화천, 흥천, 원성, 원주, 횡성과 民俗의인 脈絡을 같이하고 있는 반면, 영월은 嶺西의 太白산맥 깊숙히 들어 있는 지역인 평창, 정선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冠婚喪祭의 四禮中 婚喪 祭는 많이 변형되기는 하였으나 오늘까지 그 의식이 행해지고 있지만 冠禮만은 近年 그 자취를 감추었다. 冠禮는 일종의 成年式으로 남자는 15~20세 사이에 관례를, 여자는 15세가 되면 계례(笄禮)를 올렸다.⁽³²⁾

(30) 同연보, p. 187.

(31) 同연보, p. 196-199 참조.

(32) 『寧越의 香氣』, 前揭書, p. 153.

의복의 경우 여러가지 한복들과 그에 부수되는 것들인데, 이 고장의 대부분은 밭농사 위주로 농사를 해왔기 때문에 무명(木花)이나 삼베(麻) 재배가 성행하여 다양한 의생활은 엿볼 수 없었다. 오늘날에 와서는 화학섬유의 발달과 기성복의 대량생산으로 옛날의 衣生活은 많이 변질되었다. ⁽³³⁾

食生活의 경우 이 곳의 主食穀으로는 감자, 보리, 밀, 옥수수, 콩, 수수, 조, 메밀, 쌀 등의 生產順位로 되어 있다. 감자는 주민들의 유일무이한 主副食 겸용으로 맛있는 음식으로 가장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깊은 산이 많은 이곳은 산나물이 많이 난다. ⁽³⁴⁾

이 영월지방은 端宗의 유배지로서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고 따라서 단종에 얹힌 民俗놀이가 많다. 나이 어린 단종을 동정하고 그가 복위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나라사정이 어지러우니 主見있는 어른이 통치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하여 출다리기로 판가름하자는 데서 연유했다는 훅출다리기, ⁽³⁵⁾ 비운에 간 단종의 떠가 턱띠였다는 것에서 출발 소띠, 태지띠, 개띠 등등 각띠의 장단점을 겨루는 「띠놀이」⁽³⁶⁾ 등이 그것이다.

영월의 특산물⁽³⁷⁾은 먼저 葉煙草를 들 수 있다. 영월의 엽연초인 가제초(香草)는 전국적으로 유명했으며 지금엔 다수화품종인 황색종(S. S 품종)으로 대체되었지만 여전히 영월의 담배는 향기가 담백하고 질이 좋아 세계 25개국으로 수출되고 있을 정도이다.

송이버섯의 경우 철원을 제외하고는 道內 全域에서 생산되지만 영월의 송이버섯은 특히 인정받고 있다. 이 송이버섯은 그 향취가 一品香이고 맛이 너무도 좋아서 근래에 와서는 日本으로 다량 수출되고 있으며 道 山林當局에서 전담사업으로 1981년에는 목표량을 100톤으로 잡았으나 150톤을 채취하여 28억 8천만원의 農外所得을 올렸다. 특히 이곳 영월의 莊陵 일대의 울창한 松林과 연하리, 삼옥리, 거운리, 상동읍 녹전리 유전부락 등지에서 채취되는 송이는 그 맛이 너무도 특이해서 옛날 이 고을에서는 나라 임금님께 진상하는 특산 稀貴種으로 지정되었다고 한다.

다음엔 「꼰드레」와 「딱죽」을 들 수 있다. 이들은 이 고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진미중의 진미의 山나물이다. 꼰드레는 上東邑 和院里 뒷편 고산지대

(33) 同書, p. 148.

(34) 同書, p. 148-149.

(35) 同書, p. 157.

(36) 同書, p. 159.

(37) 同書, p. 177-179 참조.

인 望境臺 일대 깊은 산중에 많이 自生하는 식물로서 콩잎처럼 생겼으나 잎이 반들 반들하게 광택이 난다. 3월 중순경부터 7월까지 체취할 수 있다. 삶아서 금방 먹어도 毒氣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딱죽」은 색깔이 뿌연 것은 一名 잔디싹이라고도 하는데 이른봄 양지바른 곳에서부터 먼저 돋아나기 시작하여 3월 하순이 되면 쇄서 먹지 못하게 되는 早生식물인데 「찹딱죽」은 그중에서도 늦은봄 찹나무가 무성한 높은 산속에서 많이 돋아난다. 「호레비 딱죽」은 일사귀가 길고 길쭉하다. 3월초에 발생하여 4월 말경까지 채취하면 알맞다고 한다.

(6) 名勝・文化財・천연기념물・觀光

名勝・文化財의 경우를 보면, 우선 仙岩洞의 奇觀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선암동은 영월에서 東江과 西江이 합류되는 清冷浦 앞을 지나 江을 따라 오르다 보면 볼 수 있다. 平昌江의 맑고 맑은 물이 굽이쳐 흐르고 기암 절벽은 명풍처럼 西南向으로 둘러섰는데 그 거리는 500m에 뻗쳐 있고 기기 괴괴한 그 형상과 우람한 자태는 장관이다.⁽³⁸⁾

다음으로 끓을 것은 端宗의 넋이 어린 清冷浦의 景觀이다. 南面 廣川里 청령포는 영월읍에서 남서쪽 4km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뒷편은 명풍을 둘러친 듯한 層岩絕壁이 솟아 있고 그 주위는 江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울창한 소나무 숲을 이루고 있는 地島이다. 1456년 6월 28일 조선조 6대 왕 단종은 숙부인 世祖에게 魯山君으로 강봉되어 중추부사 魚得海로 하여금 군졸 50명으로 호위하게 하여 飛鳥不入의 천에고도인 청령포로 유배(流配)되어 처음으로 있던 곳이다.⁽³⁹⁾

다음으로 볼 것은 莊陵이다. 이 장릉은 이조 제 6대 왕인 단종대왕의 능이다. 단종은 숙부인 세조에게 왕위를 선위하고 상왕으로 있다가 1456년 6월 궁벽한 영월 청령포로 유배되어 있다가 그해 초가을 홍수로 거처를 영월읍 내의 관풍현에 옮겨 있다가 세조의 사약을 받고 1457년 10월 24일 17세를 일기로 원통하게 세상을 떠났다. 당시 영월호장이었던 충신 엄홍도가 동을지 산 현위치에 암장하였다. 그러나 암장하였으므로 세인은 이 사실을 모르고

※ 중종 11년에 노산군의 묘를 찾으라는 왕명이 나렸었고 1580년(선조
`역으로 노산묘를 수축하고 상석, 표석, 향좌와, 장명등 망주석을

^{184.}

『江原文化叢書 4, 1974, 江原日報社), p. 243, 그리고 『영
v. 184-185.

전립하고 능전사청도 세웠다. 다시 1585년에 능제청, 제실정자각, 영천비, 홍절분, 충신단, 제기고 등을 전립하고 제사를 받들어 오다가 1698년에 숙종이 노산묘를 장릉으로 추봉하고 노산군을 단종대왕으로 복위시켜 매년 청명일에 한식제를 올려 오던 것을 1969년부터는 대향토문화제전을 겸한 단종제를 올려오고 있다.⁽⁴⁰⁾

또 영월군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것이 둘이나 있어 눈길을 끈다. 천연기념물 76호로 지정된 영월을 하송리의 은행나무는 수령이 자그만치 천 년이 넘는 것으로 키가 20미터쯤이고, 서울국립과학관의 조사보고에 의하면 세계 제 1의 은행나무라 한다.

전설에 의하면 이 은행나무가 저절로 부러지면 國家에 큰 변란이 생긴다고 하며 촌로에 의하면 1910년의 한일합방, 1945년의 조국광복, 6·25 때 은행나무가 부러졌다고 한다. 동민들이 토속신앙에 의하여 제사를 지내며 소원 성취하고 재앙을 물리치는 신앙적 나무로 중앙되고 있다.⁽⁴¹⁾

또 다른 하나의 천연기념물은 하동면 진별리에 있는 고씨동굴이다. 이 고씨동굴은 땅속의 석회암이 오랜 세월 동안에 지하수나 빗물에 녹아 이루어진 종유석동굴이며 폭 1m~20m, 총연장 8km이다. 이 안에는 3개의 폭포와 10개의 큰 광장이 있으며 동굴진지, 돌장미, 돌저훈, 돌기둥, 용머리탑, 돌부처, 종유석, 석순, 석주들이 어울려 궁전같은 장관을 이루고 있다. 이와 같은 동굴이 형성되자면 4억 년의 세월이 소요된다고 한다. 깊은 동굴 안이기 때문에 생물의 진화 속도가 늦어 화석곤충으로 알려진 갈로아충말고도 지상에서는 옛 지질시대에서나 살았던 엽새우, 참굴개미 같은 희귀한 생물들이 마흔 가지가 넘게 살고 있어서 세계적으로 사랑하는 일본의 추방용하동굴보다 규모나 관광가치가 우수하다고 한다. 이 동굴은 임진왜란때 이 지방에 많이 살던 횡성 고씨들이 난리를 피했던 곳이라고 해서 고씨동굴로 불린다고 한다.⁽⁴²⁾

끝으로 관광면을 보면, 81년 관광객수는 92,509명이었고 관광수입은 약 2천백만원에 달했다.⁽⁴³⁾ 앞에서 보았듯이 이 영월지방은 단종의 슬픈 발자취로 아로새겨진 곳이다. 어디를 가나 무엇을 보나 거의가 다 단종과 관련되

(40) 『향토교본』, p. 80.

(41) 『한국의 발견—강원도』(1982, 뿌리깊은 나무 발행, 서울), p. 345 그리고 『향토교본』, p. 89.

(42) 『한국의 발견』, p. 345 그리고 『향토교본』, p. 88.

(43) 『江原年鑑 1983』, p. 233.

어 있는 것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단종의 추억에 푹 젖어 있는 곳이 이 지방이다. 이러한 사실만으로도 이 지방은 충분히 관광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거기다가 앞에서는 몇 가지만 보았지만 훌륭한 명승지들, 또 천연기념물들이 있어서 관광면에서 더욱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해야 될 것 같다. 아직 청령포에 들어가는 길과 고씨동굴로 가는 먼 길이 비포장으로 있다는 것은 마음걸리는 일이라 하겠다. 이 곳의 관광여건이 개선되고 관광자원이 더욱 개발된다면 기대해 볼만한 부문이 또 이 관광부문이라고 할 수 있겠다.

2. 엘리뜨研究를 위한 기초작업

먼저 地方엘리뜨의 정의는 앞에서 본 춘천지역의 경우와 꼭 같이 내려졌다.

그리고 엘리뜨를 제도적 엘리뜨, 사회적 엘리뜨, 경제적 엘리뜨로 구분한 것도 춘천의 경우와同一하다.

또 엘리뜨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의 세 가지 기준 혹은 방법 즉 지위분석법, 평판분석법, 정책결정분석법을 혼용한 것도 춘천지역의 경우와 꼭 같았다.

이리하여 엘리뜨를 선정했는데 엘리뜨선정방법과 절차도 춘천의 경우와 꼭 같이 행하였다. 따라서 위의 모든 경우 보다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춘천 지역의 경우를 참고하는 것이 좋겠다. 엘리뜨선정방법과 절차에 있어서의 5개 단계는 춘천지역의 경우와 꼭 같기 때문에 여기서는 再論을 피하고 다만 첫째 단계의 참고자료의 수집에 있어서 참고자료의 리스트는 춘천과 다르기 때문에 그것만 여기서 제시하기로 한다.

- ① 영월군 신년교례회 명단(청년회의소작성)
- ② 원주상공회의소 영월지소 회원업체 명부
- ③ 영월라이온스클럽회원 명부
- ④ 군청서무계장이 작성협조한 명부
- ⑤ 영월로타리클럽회원 명부
- ⑥ 전화번호부
- ⑦ 강원연감(1984)
- ⑧ 재경영월군향우회회원 명부

그리고 여기서도 춘천 경우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최종적으로 작성된 75명의 명단은 제시하지 않기로 한다.

3. 寧越郡 엘리뜨構造의 특성

영월군의 世居氏族은 크게 寧越嚴氏, 羅州丁氏, 횡성高氏 등일 것이다. 영월 嚴씨⁽⁴⁴⁾는 高麗·朝鮮朝를 통해 많은 忠臣 積學을 배출한 名閥의 姓氏다. 이 嚴씨는 전국에 1만 9천여호에 10만여명이 살고 있으며 영월엔 25세 孫부터 30世孫까지 함께 살고 있는데 邑內에 500戶, 南面에 200戶, 西面에 100戶, 北面·酒泉面에 200戶등이 살고 있다. 특기할만한 일은 12世孫 嚴興道의 件이다. 그는 端宗昇遐(1457) 忠義를 다한 忠臣이다. 端宗을 賜死하여 그 屍身을 버려 아무도 손을 데지 못하게 한 王命에도 불구하고 엄홍도는 아들과 더불어 그 屍身을 거두어 몰래 安葬한 사람이다. 영월 엄씨에서 는各界의 저명인사가 많이 배출되었다. 長官, 參議員, 團會議員, 道知事, 言論·文化界人士, 學者, 將星, 實業界人士 등 괄목할만한 인물들이 많다.

다음으로 羅州 丁씨⁽⁴⁵⁾가 영월군에 정착하게 된 것은 25世 丁克實이 서울에서 奉善大夫典醫監副正을 지내다가 端宗을 모시기 위해 영월에 내려온 폐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인데 이 때에 이름을 居實로 고쳤다고 한다.

또한 26世인 嗣宗도 軍威현감을 지내다가 부친의 뜻을 따라 직위를 버리고 朴彭年과 함께 단종복위운동을 했고 영월에서 엄홍도호장과 함께 단종을 모셨다고 한다.

이들은 영월군 영월읍 三玉 2리에 주로 모여 살고 있는데 총 63戶중 56戶가 代代로 살아온 나주 丁씨다. 특히 默洞에는 30가구중 두 가구만이 다른 姓씨이고 나머지는 자손 대대로 300여년동안 살아온 丁씨들이다. 先祖들 중에는 高官忠臣이 많이 배출되었고 오늘날에도 團會議員, 경찰서장 등의 인물이 배출되었다.

다음으로 볼 것은 횡성 高氏이다. 이 고씨들은 영월군 하동면 진별리를 中心으로 모여살고 있다. 특히 高宗慶이란 사람은 壬辰倭亂이 발발하자 1592년 6월에 영남의 前兵使 金誠一과 호남의 전 동래부사 高敬命의 倭義檄文(왜병을 물리치기 위해 군량, 병기, 주철, 청장년의 동원을 요청하는 격문)을 보고 분연히 일어섰다. 그는 道伯의 명으로 의병 500명을 인솔하고 평창

(44) 『江原日報』, 1983. 8. 30字.

(45) 同紙, 1981. 7. 15字.

군수 權斗文과 함께 격전하였으나 중과부족으로 전사하였다. 고씨동굴은 바로 이들 고씨가족들이 피신한 동굴이라고 한다.⁽⁴⁶⁾

이들 氏族들은 그 자손들이 상당히 번창했고 위에서도 지적했듯이 여러 부문에서 要職을 맡아 일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 그러나 그들은 영월지역에만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나가서 사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다. 그리고 영월지역에 남아서 사는 사람들도 특별히 엘리뜨集團을 형성하고 있다든지 또 個人的으로도 權力を 행사한다든지 아니면 權力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과 같은 현상은 눈에 띄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역시 各界에서 몇몇 유력한 人士들을 接見 면담한 결과에서도 뒷받침되고 있다. 이 점은 춘천지역의 경우와 유사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영월지역의 엘리뜨 종류도 앞에서 구분했듯이 制度的, 社會的, 經濟的 엘리뜨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이 세 부류 중 主役을 맡고 있는 것은 물론 制度的 엘리뜨인 것 같다. 모든 面에서 中央集權의in 우리의 歷史와 현실에 비추어 볼 때 中央과 긴밀히 연결되어 지시를 받는 制度의 엘리뜨들이 주동 역할을 하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일이라고 볼 수 있다 하겠다.

춘천지역을 논할 때도 그러했듯이 영월지역의 社會的 經濟的 엘리뜨들도 제도적 엘리뜨들에 대하여 보조적 役割을 하고 있는 狀況이라고 볼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에게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位置에 놓여 있는 것이다.

그 영향력도 中央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가서는 별로 발휘되지 못하고 다만 이 지방 문제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발휘된다고 볼 수 있겠다. 그리고 이 영향력의 행사는 개인적인 것도 있지만 조직적인 것도 있다. 그러나 그들은 잘 조직되어 있다고는 볼 수 없고 따라서 組織의in 面에서의 영향력도 그렇게 크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물론 각계에서 선택 면담한 몇몇 有力한 人士들의 견해에 의해서도 뒷받침되고 있다.

위에서 본 世居氏族들의 후손들도 각 세 가지 엘리뜨類型에 섞여져 소속되어 있음을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리고 이러한 위의 모든 狀況들은 春川地域의 경우와 매우 흡사한 것 같다.

(46) 『영월을 찾아서』, p. 105-108.

다. 要約 및 結論

이미 앞에서 밝혔듯이 춘천시는 약 53km^2 의 면적으로 분지에 자리잡고 있다. 人口는 약 16萬인데 그 大部分이 3次產業에 종사하고 있다. 1人當 生產所得은 1,633弗이다. 財政의 自立度도 매우 낮다. 教育·文化, 民俗, 名勝·文化財·천연기념물 등은 再言을 피하고 다만 再言할 것은 이 춘천지역은 山水가 좋아서 관광지역으로 크게 각광을 받고 있으며 그 方面으로의 개발은 매우 고무적이라는 점이다.

영월의 경우도 앞에서 밝혔듯이 그 면적은 약 $1,000\text{km}^2$ 이고 험준한 산악 지대에 놓여있다 하겠다. 人口는 약 95,000명이고 그 절반 가량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재정의 자립도는 너무 낮아서 춘천과 비교도 안된다. 영월의 경우도 教育·文化, 民俗, 名勝·文化財 등은 再言을 피하고 다만 이 지역이 重石과 石灰石으로 유명한 곳이라는 점, 그리고 단종의 유배와 얹혀 있는 곳이며 고씨동굴이 있는 곳이어서 관광개발의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는 점을 再言해 두고 싶다.

엘리뜨構造의 면을 보면 兩地域 다 世居氏族들은 있다. 그리고 이들 氏族들의 자손들이 상당히 번창했고各界에서 要職을 맡아 활약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大部分이 外地에 나가서 살고 있고 一部가 춘천지역 혹은 영월지역에 살고 있지만 특별히 이들 지역에서 엘리뜨團을 형성하고 있다든지 權力を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눈에 띄지는 않는다.

兩地域에서 다 制度의 엘리뜨가 主役을 맡고 있고 社會的·經濟的 엘리뜨들은 그들 제도적 엘리뜨들에 보조적 役割 내지는 영향을 미치는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그 영향력은 지방문제의 경우에 좀 더 크지는 것 같다. 世居氏族들의 후손들도 그 一部가 이 세 部類의 엘리뜨에 混在해 있음은 물론이다.